

# 창립 28주년 기념식



쌍용건설은 10월 18일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김석준 회장과 기순홍 감사를 비롯한 본사 임직원 및 장기 근속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수상과 노조위원장의 축사, 대표이사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워크아웃 졸업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창립기념일로 지난 해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다진 바 있다”고 회고한 뒤, “일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일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수주, 손익, 자금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계획을 초과 달성했고, 재무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돼 더욱 내실을 다지며 탄탄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8·31 대책 등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의식’과 ‘영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시장 접근 능력’이라고 강조하며,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와 M&A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반드시 우리의 저력이 결실을 맺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저녁에는 김석준 회장 등 경영진과 유진태 노조위원장, 이원혁 우리사주조합장 등 본사 및 현장 직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회사의 창립 28주년을 축하하고, 임직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호프데이’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창립기념을 맞아 서호모 상무를 비롯한 25년 근속자 4명과 20년 근속자 23명, 15년 근속자 86명, 10년 근속자 116명 등 장기근속자 총 229명에게는 장기근속 상장과 안식휴가, 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졌다. S

# 제2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 시상식

국내 유일의 리모델링 관련 공모전인 「제2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의 시상식이 9월 30일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됐다. ‘도시건축의 새로운 모색-리모델링(New Grouping for Urban Architecture by Remodeling)’을 주제로 실제 현존하는 아파트와 일반건축물에 대한 학생들의 리모델링 설계안을 접수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04팀이 응모해 리모델링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석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모전은 21세기 건축의 새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모델링을 주제로 향후 우리 나라 건축의 올바른 방향을 산학협력 과정을 통해 모색해 보는 의미있는 행사”라며, “응모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지도 교수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리모델링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이며,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개선하는 일반적 리모델링에서부터 도시환경의 틀을 바꾸는 시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대상에는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이상민의 ‘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안이 선정됐다. 이 설계안은 기존 평면에서 완전히 탈피해 전체 건물을 계단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반 주택에서

나 가능한 옥상이 없는 테라스 공간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은 ‘태평라이프 상가아파트 리모델링’ (Space of Flow)의 경일대학교 김영환·김동호 팀과 ‘낙원상가 리모델링’의 홍익대학교 김경민·이혜민 팀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행사의 심사는 김진균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비롯한 이 상호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장식 쌍용건설 건축본부장 등 총 7명의 전문가들이 담당했으며 ▲ 대상 1팀(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2팀(상금 200만원) ▲ 우수상 4팀(상금 100만원) ▲ 입선 30팀(상금 30만원) 등 총 37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상 이상 수상자와 지도 교수에게는 유럽 등 해외건축체험 기회가 주어지고 우수상 수상자까지는 우리 회사 입사지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전시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 동안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전시회 첫날인 9월 30일에는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주최하는 리모델링 정책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2000년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팀을 구성한 바 있는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 단지 전체 리모델링인 방배동 궁전아파트, 강남 재건축 단지 중 리모델링 전환 1호 사업인 도곡동 동신아파트 등 총 4개 단지 1,424세대의 리모델링을 수행 중에 있다. S



# 주 택 정 책 변 화 에 따 른 건 설 업 계 혁 신 방 안

## ● 21세기 국내의 건설환경의 지속적 변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국제 건설환경은 환경친화, 개방화, 정보화를 바탕으로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지향하고 있으며, 환경적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경제적 지속성(Economic Sustainability), 사회적 지속성(Social Sustainability)을 기본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제 건설환경의 지속적 변화가 오히려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국 건설산업의 피해를 포함하여 전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자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내 공기질 향상, 실내외 소음 저감,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주거단지를 포함한 도시전체의 경관 향상 등 건강(Well-being)을 고려한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국제 건설환경이 지향하는 환경친화, 개방화, 정보화 등이 별도의 여과장치 없이 바로 국내 건설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국내 건설시장의 점진적 개방 확대는 국제 건설환경과 국내 건설환경이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분야만의 제한적 노력만으로 국제 건설환경의 지속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설정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관련업체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총체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주택정책 기초 '양적 성장' 에서 '삶의 질 향상' 으로

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한 양적 성장 위주의 주택정책은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계기로 외형적으로는 집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의 절대부족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평균 가구원수 감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성장을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대 등 전통적인 인구·가구구조 자체의 급격한 변화가 국내 건설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주택의 '양적 성장' 을 최우선시 하던 주택정책 기초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국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삶의 질 향상' 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개발이익만을 최우선시 하려는 왜곡된 시장구조가 장기간에 걸쳐 고착됨으로써 주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실질적인 내구수명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추진하기 보다는, 재산증식의 주된 수단으로서 불필요한 재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막대한 부담 증대와 대량의 건설 폐자재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 주택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 등의 폐해에 직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반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국내외 건설환경의 지속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총량적 주택공급, 획일적 주거기준 적용, 자율적 시장기능 억제 등의 분명한 한계를 노정시켜 왔던 '주택정책' 의 대표적 수단인 '주택건설촉진법' 을 2003년 5월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택법' 으로 새롭게 정비하였다.

## ●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의 혁신방안 제안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국내외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실천적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마다 자체적인 완결성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맞는 혁신적인 비전, 목표, 전략 등을 수립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각각 수립한 비전, 목표, 전략 등이 현실을 무시한 구호는 아닌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국제적 역량은 갖고 있는 것인지, 미래 지향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성찰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환경친화, 개방화, 정보화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국내외 건설환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주택정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혁신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 ① 국내외 건설환경의 지속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구호성 비전에서 탈피하여 실현 가능한 미래 지향적 비전 제시
- 비현실적인 목표에서 탈피하여 정량적인 구체적 목표 설정
- 국내외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실천적 추진전략 수립

## ② 건설업계 혁신을 위한 기본원칙

- 주택은 무생물적 존재인 건물이 아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생명력을 갖는 유기체적 존재로 인식
- 주택은 단순히 건설하는 것이 아닌, 풍요로운 주거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로 인식
- 수요 대응을 위한 '고객 지향적 사고' 를 포함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고객 중심적 사고' 를 지향
- 개별기업의 독자적 생존만을 지향하려는 한계성에서 탈피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전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공조·공생할 수 있는 글로벌화 된 시스템 구축
-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달성 위주의 추진체계가 아닌, 지속적 성장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③ 창조적, 혁신적, 미래 지향적 신제품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 제도권 아래에서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려는 정부 의존적 추진체계에서 탈피하여 선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시장경쟁 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
- 수요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및 라이프사이클 등의 주생활 변화요구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 및 실용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
-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외형적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제고하기 보다는 공익성·수익성 향상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재된 가치창출로 전환

끝으로 건설업계가 국내외 건설환경의 지속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걸친 가시적 성과달성만을 지향해 왔던 20세기의 진부함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려는 자조적 혁신이 필요하며, 양적 확산을 위한 개발 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우리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본으로 한 '인간, 자연 그리고 미래' 를 위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건설환경 구현의 중심체로서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S

| 김명환 이사 주요 약력 |  
● 서울대학교(건축학과) ● 현 대한주택공사 기술이사

